

# 올해의 50대 발명품과 여성발명



김경희

한국여성발명협회 홍보팀장

이제 2009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달랑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2009년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뒤돌아봅니다. 다가올 2010년을 맞으며 21세기 새천년의 시작이라고 설레던 때가 벌써 9년이 지나 21세기도 십단위로 접어드는구나 생각을 하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는 뉴스들이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합니다. 발명분야에서도 시사주간지 타임이 매년 이맘때쯤 올해의 주목할 만한 발명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올해도 타임(Times)지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한 '올해의 50대 발명품'을 소개했습니다.

2009년 발명품 중의 1위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달 탐사 로켓 아레스(ARES)가 차지했습니다. 지난 10월말 첫 시험비행을 한 아레스는 우주탐사선 '오리온'과 함께 우주로 발사될 예정으로 1972년에 중단된 인간의 달 착륙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는 야심찬 발명품이기 때문에 당

당히 일등이 되었습니다. 아레스는 지금까지 제작된 로켓 중 가장 긴 100미터의 높이를 가졌고, 노후한 현 우주 왕복선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어 2020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려는 나사 프로젝트에 핵심이 되는 탐사선입니다.

2위는 올해 3월 첫 양식에 성공한 참치 양식 기술로, 탱



크 안에서 참 다랑어를 기를 수 있도록 고안한 방법입니다. 수산업계의 난제였던 참치 양식에 큰 진보로 이룬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3위는 필립스가 내놓은 LED 전구입니다. 백열등에 비해 90%의 효율성을 발휘하고 수명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 뿐 아니라 형광등과 달리 수은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친환경 경적이기까지 합니다.

4위에는 자동온도조절장치 '서머스택' 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머스택 기술이 정보기술과 결합하면 휴대폰으로 집과 사무실의 에너지 수요를 조절하는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8위는 에이즈 백신이 차지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세상에 알려진 지 26년 만에 개발된 첫 백신으로, 3년에 걸친 임상시험결과 31%의 예방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으나 에이즈와의 싸움에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9위는 '생각으로 트위팅하는 기술' 로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생물의학 전공 박사과정 학생인 아담 월슨은 전국이 달린 특수 모자를 쓰고 컴퓨터 화면의 글자에 정신을 집중하면 원하는 글자가 실제 입력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획기적 발명품입니다.

10위는 MIT 연구진이 개발한 전자 눈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부분적으로 보는 것을 돕는 마이크로 칩으로 안구에 이식할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형태나 방향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 페달이 없이도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기만 하면 방향이 조절되며 시속 20km로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인 이크바이크(Yike Bike)도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무게가 9kg에 불과하고 20분 만에 80%나 충전할 수 있어 내년 뉴질랜드와 영국에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많은 식물을 경작할 수 있게 한 수직재배기법(Vertical Farming)과 영국의 제임스 데이슨이 개발한 '데이슨 에어 멀티플라이어'란 이름의 회전 날개 없는 선풍기, 후지필름의 3차원 영상을 찍을 수 있는 3D카메라, 재활용 종이로 만들어진 7.6cm 크기의 접는 스피커, 가난한 장애인을 위해 미 스탠퍼드대학이 개발한 플라스틱 부품 다섯 가지와 볼트 및 너트 2쌍으로 연결된 20

달리짜리 인공 무릎 등이었습니다.

올해의 50대 발명품 중에는 1위를 차지한 달 탐사 로켓 처럼 오랜 연구와 첨단 과학기술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야 가능한 것도 있지만 팬 없는 선풍기, 3D 카메라처럼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궁금중이나 불편함에서 시작했거나 나 하는 생각이 드는 발명품도 있습니다.

2009년 올해의 50대 발명품을 보면서 문득 처음 한국여성발명협회에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1회 세계여성발명대회를 앞두고 홍보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열흘 뒤로 다가온 대회를 알려야 해서 여성발명품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이 과학 분야인데다 그때까지 발명이란 '발' 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완전 문외한인 저한테 가져온 것들은 발명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평범한 제품들이었습니다. 청국장찌, 양파음료, 천연비누, 헤어캡 같은 제품들은 제가 그동안 알아온 소위 과학 전문가들에게 여성발명품으로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난감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발명이란 이름을 붙이려면 누가 봐도 신기하거나 적어도 최소나 첨단의 기술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자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듣는 질문이 여성 발명품이 뭐냐는 것과, 또 그런 것이 어떻게 발명품이냐는 것입니다.

생활 발명은 가까이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발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냄새나는 청국장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찹으로 만들어 빵에다 발라먹게 하면 얼마나 건강에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청국장찌입니다. 건강에 좋은 우리의 전통 발효음식이 요즘 신세대에 맞는 퓨전음식으로 재탄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발명품으로 인정받을만합니다.

우리 사회에 발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독특한 창의력을 가진 발명가들만이 발명을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여성의 생활 발명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발명은 생활을 하면서 느낀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 발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출시되면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협회 회원 중에 환갑 넘은 나이에 반짝 아이디어 하

나로 인생을 바꾸고 사업가의 꿈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전업주부였던 이 분은 아이들 운동화를 세탁할 때마다 빨기가 불편해서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불쑥 “내가 한번 고쳐볼까?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진짜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신발 발등에 지퍼를 달아 신발 아래 위가 떨어지게 한 분리형 운동화였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패션디자인을 조금 더 가미하자 국내 뿐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도 판매 문의가 이어졌고 지금은 당당한 여성 사업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발명이나 특허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한 걸 고쳐보려는 생각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지 못해도 자신의 일의 능률을 높이고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고자 하는 사고의 전환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는 여성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고, 더 나아가 생활속에서 찾아낸 여성의 발명아이디어를 사업화, 경제화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생활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발명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말에는 최고의 여성발명아이디어를 뽑아 시상하는 여성발명경진대회와 여성장애인발명아이디어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도 친환경 튀김기, 유통기한 측정 장치, 통풍구가 있는 차량용 창문, 정맥주사용 반사기, 썩크대 커튼, 유아운수방지장치, 말하는 휴대폰 등 여성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가 빛나는 작품들이 대부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최고 대통령상을 수상한 여성발명대회 수상자들도 대부분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 시작은 호기심이었지만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교육과 아이디어대회, 시제품 지원, 박람회 등을 통해 발명가로서의 삶에 들어서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은 발명품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노트북과 USB, 마우스 뿐 아니라 앉아 있는 의자, 듣

고 있는 라디오, 침대 위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화장품과 거울, 옷장 속의 오리털파카와 목욕탕에 있는 비누, 치약, 칫솔 등 어느 것 하나 발명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곧 발명의 역사인 셈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입고 자는데 쓰는 각종 물건들의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모두 발명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바꾼 뛰어난 발명을 만들어 냈던 사람들이 모두 특별한 사람만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을 다만 먼저 실천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발명가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이디어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아무 값어치도 없습니다. 발명이란 일의 효율을 높이고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려는 것이며 인간이 더욱 건강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 결과로 개인은 경제력을 가질 수 있고 기업, 더 나아가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하며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발명의 목적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발명은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발명을 통한 산업재산권 갖기는 여성들에게 가정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합당한 경제력을 만들어 주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더불어 여성들의 독창적이고 세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실용성이 가미된 발명은 발명자인 여성뿐만 아니라 국가적, 산업적으로도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세계 50대 발명품 속에 우리나라 여성의 발명품이 당당히 끼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발명특허 2009. 12


**그림 출처**  
타임지  
<http://www.time.com/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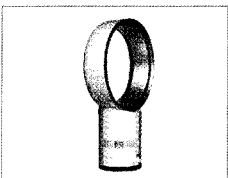
LED전구



전자문



이크바이크



회전 날개 없는 선풍기